

이주의 본당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위령성월(11월) 연미사 신청

위령성월(11월)을 맞아 연미사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위령 미사는 한 번 신청하시면 위령성월 한 달 내내 연미사를 올려드립니다. 신청은 윤모니카 회장님이나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전례부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묘지 방문

지난 11월 2일(목) 위령의 날 미사 후 Newfield에 소재한 본당 묘지(All Saint Cemetery)를 방문하였습니다.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비롯하여 레지오 단원들과 15명의 신자분들이 방문하고 연도를 마쳤습니다. 점심을 준비해 주신 평화의 모후 브레시 디움과 김광영 토마스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당 웹페이지

새로운 성당 웹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chkcc.org입니다.

● 평화의 모후 레지오 입단 선서

지난 11월 2일(목) 평화의 모후 제478차 주회합 중에 김광대 율리아나 자매님과 홍혜자 마리아 자매님이 성모님의 군단으로 입단 선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레지오의 대열에 한자리 차지하여 충실하게 봉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단원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 메디 케어 무료 상담

배필순님(State Licensed Life and Health Producer)께서 미사 후 친교 시간에 메디 케어 및 의료 보험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십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Thanksgiving 파티

11월 19일(일) 미사 후 Thanksgiving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에 도움을 주실 분은 문혜숙 베로니카 성모회장님(856-524-2114)께 연락바랍니다.

● 영화의 밤

11월 26일(일) 친교 후 영화 “오빠 생각”을 상영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그리고 김영순 스텔라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함께! 구역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라파엘 구역>

오세환, 이정현, 김추자, 김성욱, 권수희, 김성철, 신명숙, 이경실, 안우풍, 장한민, 최미라, 권선용, 김명자, 홍혜자, 김영복, 장석영, 장인숙, 김윤선, 이순덕, 강옥화, 김승수, 한진옥, 백윤기

<엘리사벳 구역>

정경재, 정의환, 최만섭, 최화숙, 황선동, 황태영, 신용철, 신선희, 방효선, 방영애, 김광영, 김명희, 송현배, 송현숙, 문만기, 문혜숙, 김영두, 김영숙, 이금주, 이보현, 김글라라, 김충수, 김영순, 김희검, 김덕자, 박영진, 이은자, 김인훈, 한민숙, 김덕영, 박영목, 박영희, 이신원, 정광근, 정정자, 이병원, 강정숙

<레지나 구역>

김레지나, 최영숙, 김형수, 김희동, 김혜정, 윤모니카, 김광대, 윤현석, 오윤주, 김재숙, 하국일, 김성문, 김정숙, 유명옥, 이상민, 이수영, 권혜원, 권준오, 김승윤, 이윤상, 이윤복, 송미라, 김성현, 김순자, 박소윤, 윤혜경, 배진형, 배향숙

알립니다!

* 꽃봉헌과 미사봉헌은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자매님(484-995-9638)

* 친교명단을 친교실에 공지하였습니다.

* 이번주 상품권판매는 레지나 구역입니다.

이번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기도회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구역입니다

(친교실 청소는 매달마다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Church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오후 12시
평일(수요일-Healing Mass)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평협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늘의

미사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55)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1, 14ㄴ-2, 2ㄴ. 8-10
화답송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2, 7ㄴ-9. 13
복음 환호송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복음	† 마태오 23, 1-12
봉헌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25)
성체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167)
퇴장성가	400번 주님과 나는 (2)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31주일 11월 5일	연중 제32주일 11월 12일	연중 제33주일 11월 19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하국일 암브로시오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이윤복 스테파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성혈분배	김정숙, 김현수	김정숙, 윤모니카	김성현, 윤모니카
친교봉사	신선희 카타리나	윤모니카	

오늘의

묵상

오늘날 지도자들의 사명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님께서는 제1독서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사제들아, ……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당시 사제들은 민중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형식주의에 몰들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옷차림으로 다른 이를 차별한다면 오히려 옷의 노예가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한다면 이웃은 없어지고 재물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사이들은 다른 이들과 차별된 행동을 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린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찬미하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였을 것입니다.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매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니며 묵상하기 위함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과 벽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식별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2분

교리

성호경이란 무엇입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고백으로 이마와 가슴과 양 어깨에 십자가를 그으며 드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기도를 말합니다.

성호경을 긋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행위가 됩니까?
하느님을 고백하는 중대한 신앙행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인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미사는 모두 삼위일체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확인하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주일정성	<10월 29일(일)>
봉헌금	\$594.00	
교무금	\$500.00	
		안우풍(10-12), 이궁주(10,11)
김형수 구역(잔액 입금)	\$250.00	
Total	\$1,344.00	